

休^①

진흥왕(眞興王), 신라의 통일을 꿈꾸다

글. 위영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

진흥왕 부른다

신라의 삼국통일의 기반을 닦은 왕을 말하자면 단연 진흥왕(재위 540~576)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웠던 가장 상식적인 수준에서 진흥왕을 상징하는 업적으로 순수비(巡狩碑)를 언급한다. 순수비는 그 위치나 내용 면에서 신라가 경상도와 경기도, 함경도로 진출했던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는 실물 기록이기 때문이다. 사방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통치의 위엄을 과시하고자 했던 진흥왕의 강한 염원은 약 100년이 지난 후 삼국통일(三國統一)로 실현된다. 이러한 진흥왕의 업적에 대해서는 『삼국사기(三國史記)』나 『삼국유사(三國遺事)』의 문헌 기록만으로도 충분할지 모른다.

이들 문헌사료에 수록된 내용에는 영토를 확장해서 주(州)를 설치했다는 사실 등이 담겨 있으나, 당시의 생생함을 그대로 보여주지는 못한다. 더욱이 문헌자료는 고려시대(高麗時代)에 정리된 2차 자료로 진흥왕 시기와 몇 백 년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물이나 사실(史實) 등의 전모를 파악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따른다.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금석문(金石文) 자료이다. 금석문은 돌, 금속, 나무 등을 포괄하는 생생한 현장의 기록으로 다양한 역사적 정보를 담고 있다. 오늘날 역사학자들에게 금석문은 가뭄에 단비와 같은 존재라 할 수 있다.

진흥왕대로 알려진 대표적인 금석문은 영토 확장 관련 4개의 비문 외에도, 단양적성비와 명활산성비가 있다. 이들 금석문 자료는 당대의 역사자료라는 점에서 문헌사료의 한계를 메꾼다. 이 글에서는 ‘북한산 순수비’를 주목할까 한다. 북한산 주변은 한강이 흐르고 서쪽과 북쪽의 길목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01 비봉 정상에 있는 진흥왕 순수비(CET0061067, 1972년)

진흥왕 재위 당시 신라는 한강을 두고 고구려, 백제와 경쟁하여 확보하였다. 진흥왕이 이 땅을 차지한 후, 지방관을 파견하여 영토지배를 공고히 하고자 하였고 지역민심을 얻으려는 정책을 폈다. 순수비에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진흥왕의 의지가 담겨 있다. 북방과 서방으로의 진출은 단순한 영토의 확장이 아니었다. 신라 삼국통일의 경제적·정치적·군사적·문화적 발전과 그 궤를 같이 한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은 신라가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하기까지 승승장구의 기반이 놓인 때를 진흥왕대로 보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북한산 순수비의 드라마틱한 발견 경위와 이전(移轉)의 역사를, 그리고 비문의 내용과 역사적 특징 등을 문헌자료와 병행하면서 간략하게 풀어가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문헌과 더불어 금석문 자료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진흥왕 재위 당시 신라는 한강을 두고 고구려, 백제와 경쟁하여 확보하였다. 진흥왕이 이 땅을 차지한 후, 지방관을 파견하여 영토지배를 공고히 하고자 하였고 지역민심을 얻으려는 정책을 폈다. 순수비에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진흥왕의 의지가 담겨 있다.

”

진흥왕 마주하다

1816년 한 여름, 추사(秋思) 김정희(金正喜)는 친구 김경연(金敬淵)과 북한산 비봉(碑峯)에 오른다. 오래된 비석이 서있다는 정보를 사전에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비봉에 올라, 진흥왕 순수비를 목격한다. 이전까지 무학대사(無學大師)가 세웠던 비석으로만 전해진 터라 사람들의 주목받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 해 여름인 7월, 추사는 조인영(趙寅永)과 다시 비봉에 올라 비문의 이끼를 닦아내고 비문에 새겨진 내용을 보면서 비로소 이 비가 당시로부터 약 1,200여 년 전, 신라 진흥왕과 관련한 것임을 알아낸다. 추사가 문헌으로만 남았던 진흥왕의 업적을 비로소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비에 새겨진 내용을 꼼꼼히 정리하여 마멸된 부분을 제외하고 판독 가능한 글자 68자를 읽어냈으며, 논문으로 완성한다.

비문 측면에는 그가 순수비를 발견했다는 내용 - 지금으로 보면, 문화재 훼손행위이지만 - 이 꼼꼼히 적혀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비문의 앞면과 옆면의 내용 가운데 앞면은 마모가 특히 심하다. 앞면 몸돌은 도저히 읽을 수 없는 내용 같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적지 않은 정보가 드러났다. 즉 진흥왕은 재위 당시 태왕(太王)으로 불렸다는 사실, 많은 신하들의 실명과 관직명이 문헌과 일치한다는 점, 종교적·정치적 행위가 곳곳에 기록되어



02 북한산 순수비(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유리원판)

있는 내용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인 기록 정보들은 문헌 사료를 보완하고, 나아가 역사적 실체를 더욱 풍성하게 해 주었다.

추사의 관심 이후, 순수비는 세간에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1930년대 일부 학자들이 순수비의 중요성을 언급했으며 일제는 보물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1939년 《동아일보》(5월 13일자)에 최익한(崔益翰)이 기고한 글에는 순수비 윗부분이 굴러 떨어져 서쪽 30m 지점에서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보인다. 그는 내부 쇠심을 확인했으나, 그 시기와 설치한 장본인을 조선시대나 근처 사찰로 추정했다. 한편 최익한은 순수비 옆면의 ‘己未八月二十日 李濟鉉 龍仁人’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순수비는 1960년대 들어와 국보 제3호로 관리되지만, 여전히 비바람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전한 보존이 비등한다. 당시 관리를 위해 현장에 보호각을 만들거나 별도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는 못하였다. 1970년대 들어와 언론에서 순수비의 보호를 둘러싼 비판이 거세게 일자, 정부 당국도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다. 더욱이 일제 시기 순수비의 위아래를 연결했던 쇠심이 박혀 있었지만 불안정한 상태였고, 6·25전쟁



03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 앞면과 옆면(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당시 총탄을 맞은 흔적도 여러 군데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풍상에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관리국(현재 문화재청)은 1972년 순수비 이전(移轉)을 계획한다. 1972년 8월 16일, 문화재청은 북한산 비봉에서 경복궁의 안전지대로 순수비를 옮기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고, 우천 상황으로 8월 25일에야 작업이 끝났다. 순수비가 있었던 원위치에는 표석(標石)을 설치하였다. 이후 순수비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중앙청(구 조선총독부 건물)에서 현재의 고궁박물관, 다시 용산으로 옮길 때 이전을 거듭하였다. 안타까운 점은 순수비가 어느 시기부터 인지는 모르지만, 몸돌 밖에 없다는 점이다. 머릿돌은 없어졌고 끼웠던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는 한때 머릿돌을 찾는 행사를 펴기도 했었다. 그러나 머릿돌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순수비가 경복궁 경내로 옮겨지는 1972년의 사정을 좀 더 들여다보자. 당시 언론에서는 순수비가 불안한 상태인데도 문화재 당국은 미온적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질타했다. 아래는 1972년 무렵, 언론에서 순수비의 안전관리와 이전 등에 관한 내용이다.

국보 제3호인 ‘북한산 신라진흥왕 순수비’의 하반 일부가 파손되어 안전 보존대책이 문제되고 있다. … 파손된 부분은 시멘트로 보수했던 남면 하단부로 한자 남짓의 세모꼴로 비신이 떨어져 나가고 윗부분에 비스듬히 금이 가 있어 그대로 두면 작은 힘에도 쓰러질 가능성이 짙어 안전 보존대책이 대두되게 되었다. … 문화재관리국장은 이에 대해 순수비의 보존은 옥내 보존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다고 말하고 오는 7월 중에 문화재위원회를 소집, 보존대책에 매듭을 짓겠다고 밝혔다. 그는 옥내보존의 경우 비는 8월중에 완공되는 경복궁의 종합박물관에 보관하고 순수비가 있던 비봉산정에는 모조품을 세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보 3호 진흥왕 순수비〉《동아일보》, 1972. 6. 28.

아래쪽 30cm떨어져 국보 3호 박물관에 옮겨 보존기로 … 문화공보부는 28일 국보 3호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를 경복궁 종합박물관으로 7월 중에 옮겨 보존기로 했다. 문공부는 비신이 떨어지고 금간 순수비가 비바람에 파손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전토록 했다. 순수비가 있던 현지에는 이전 기록을 담은 모조비를 세운다. 이 신라 진흥왕 순수비는 남쪽 아래쪽이 약 1자 가량 세모꼴로 떨어져나가는 등 손상되고 있다. … 이 비석은 6.25사변 때 일부 비신이 떨어져 나가 시멘트로 이어 놓았으나 그 동안의 풍화로 접합부분을 포함, 비신 하반신이 1척씩 세모꼴로 떨어져나가고 위쪽에는 금이 가 흔들리고 있다.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 풍화로 크게 磨損〉《경향신문》, 1972. 6. 28.

1,400여 년의 비바람에 시달린 진흥왕 순수비(국보 3호)를 새로 건립된 국립박물관으로 옮기는 조심스러운 작업이 10일 시작됐다. 해발 500m 북한산 비봉에 위치한 순수비 자리는 사적 228호로 지정되고 비신이 서 있던 자리에는 순수비보다 37cm낮은 높이 120cm, 너비 69cm, 두께 10.8cm의 표석이 세워진다. … 문화재관리국은 450kg의 순수비 이전작업을 대한통운에 맡겨 10일부터 비신분류·포장·운반 등 3단계로 공사를 진행 늦어도 16일에는 끝내겠다는 것이다. …

〈진흥왕 순수비 이전작업 착수〉《경향신문》, 1972. 8. 10.

국보 3호인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의 이전 작업은 만 9일 만인 25일 오후 순수비를 경복궁 근정전 회랑에 다시 세움으로써 모두 끝났다. 비신 하단부가 더 떨어져 나가 보존대책이 문제되자 옥내보존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 문화재관리국은 지난 16일부터 순수비 이전작업에 들어갔으나 암반에 물려있는 비신 하단부의 분리작업이 예상외로 늦어져 작업 개시 만 9일 만인 25일 오후에야 순수비를 경복궁에 옮겨와 근정전 회랑 동측에 마련된 좌대에 올려놓았다.

〈신라 진흥왕 순수비 이전〉《동아일보》, 1972. 8. 26.

문화재관리국은 1972년 7월에 실태조사에 들어갔으며, 위원회를 열어 이전에 필요한 경비와 필요성 등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그 결과 1972년 8월 16일로 이전날짜가 확정되었고, 군인들의 삼엄한 경계와 제한된 언론만을 허용하면서 이전을 단행했다. 문화재관리국은 몇 년 전부터 진흥왕 순수비의 이전 또는 보호시설 설치 등의 방안을 수차 강구하고 있었다. 1970년부터 각계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여 왔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이전과 보호각 설치 등으로 나뉘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언론의 질타와 문화재의 안전한 관리라는 점을 고려하여 1972년에 이르러서야 이전하는 것으로 최종결론이 났던 것이다. 즉 1972년 7월 문화재위원회에서는 국립박물관으로 이전을 확정하였고, 비석이 있는 장소에 표석을 설치하고 이 일대를 사적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 그것이다. 결국 여러 상충되는 의견을 종합하여, 문화재관리국은 1972년 8월에 이르러 ‘신라 진흥왕 순수비 이전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전 장소는 경복궁 근정전 회랑으로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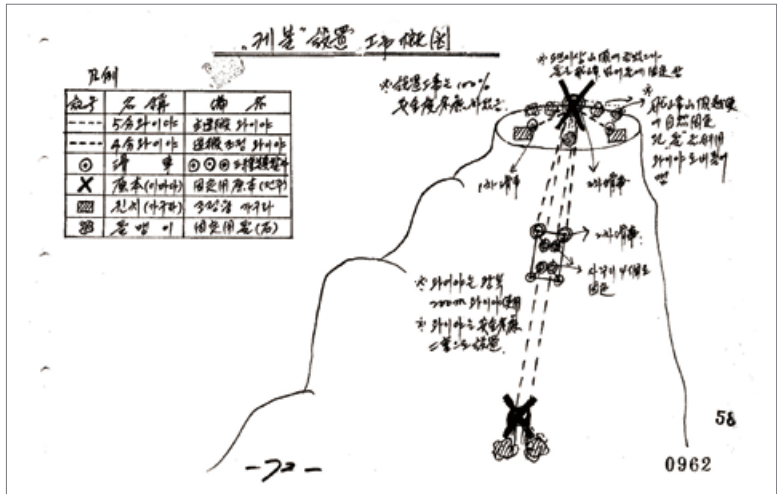
05



06



07



08 케이블 설치 공사 개요도(BA0120639, 1972년)

지정했다. 8월 한 달 동안 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먼저 표석과 대화 설치 작업을 시작으로 하여, 비계 설치, 해체 및 포장, 하산 운반, 순수비 설치, 표석 설치 등의 순서로 하여 8월 1일부터 17일까지 작업은 완료한다는 것이었다. 산 정상에서 아래까지 이동 수단은 이중 레일로 하였다. 세부적인 일정과 공사 진행은 「북한산 신라진흥왕 순수비 이전보고서」(문화재관리국, 1972. 9)를 통해 자세히 볼 수 있다. 이를 요약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972. 8. 1.~14. : 대좌 및 표석제작 공사 완료하고 설치를 위해 경북 공에 이전완료 함
- 1972. 8. 14.~15. : 북한산 비봉에 케이블을 복선으로 설치 완료함
- 1972. 8. 16. : 상단부를 별도로 포장하여 암석과 분리 성공(쇠심 2곳 확인)
※ 하단부 12개의 쇠심, 시멘트 고정 확인
- 1972. 8. 17. : 하단부 암반에 19cm 깊이로 박혀 고정 확인
- 1972. 8. 18.~19. : 폭우로 공사 중단
- 1972. 8. 20. : 하단부 비신 분리 성공(비신 좌측 1개소에 6cm의 구멍을 뚫고 빼기를 박음)
- 1972. 8. 21. : 하단부 하산 성공(표석을 세움)
- 1972. 8. 23. : 오전 10시 세검정 북한산 입구까지 운반 완료 (레일식 가설)
- 1972. 8. 24. : 좌대를 경북국 회랑에 설치
- 1972. 8. 25. : 오후 7시 세검정에서 경북궁으로 이전 완료(경찰 호송)

04 산신제 거행 모습(CET0061067, 1972년)

05 순수비 크기 실측(CET0061067, 1972년)

06 상단부 분리 작업(CET0061067, 1972년)

07 하단부 분리 작업(CET0061067, 1972년)



09 진흥왕 순수비 이전작업 모습(1972년)

순수비는 약 450kg에 달하고, 상하는 비스듬하게 금이 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안전한 분리와 이동은 만반의 준비를 통해 이루어져야 했다. 위의 문서나 사진 자료를 보면, 순수비의 이전이 하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8월 16일에는 상단부분을 분리하는데 그쳤다. 그리고 집중호우로 며칠을 쉬었다가 8월 25일 되어서야 경북궁내로 옮겨졌다. 산 정상에 있었기 때문에 헬기나 레일을 설치하여 이동하는 방법이 강구되었다.

일반적으로 역사적 기록물은 현장을 떠나면 그 증거능력에 상당한 손실이 뒤따른다. 그러나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는 적절한 대책도 필요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문화재관리리는 현장에서 멀지 않은 안전시설(박물관, 기념관 등)에서 전시, 교육 등의 목적을 위해 활용한다. 역사적 서술이 풍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적 맥락을 연계해서 푸는 것이 유물의 의미를 되살리는 것이다. 여하튼 순수비의 이전으로 신라 진흥왕은 국민들의 전면에 나타났다. 아울러 교과서에서만 배웠던 역사적 흔적이 이제는 국민과 공유하고 느끼는 실물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녔다.

이처럼 순수비는 북한산 비봉에서 발견된 200년 전부터 현재까지 많은 이동을 겪으면서 우리들에게 내용의 정보뿐만 아니라 비문의 이동, 비신의 절단 등 여러 사연을 전해주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현재 교과서나 역사서에서 보는 순수비가 단순히 1,500년을 안전하게 보존·관리된 것이 아니라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우리 역사를 알려주는 흔적이자 산증인으로 자리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진흥왕 순수비가 들려주는 지난 이야기를 들었으면 한다.



10 이전 완료 후 모습(CET0061069, 1972년)



11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 이전 보고서 표지(1972)

진흥왕 응답하다

『삼국사기』에는 진흥왕의 출신, 업적, 사망에 관한 내용이 연대기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진흥왕이 왕위에 오를 무렵은 어떤 시기인가? 전대(前代) 왕이었던 법흥왕(法興王)이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불교를 공인 하였으며, 그 앞의 지증왕(智證王)은 왕위를 종래 마립간(麻立干)에서 왕(王)으로 바꾸었다. 약 500년이나 지속되어 왔던 신라 고유의 왕의 칭호에서 이제는 공식적인 국왕으로 대외적으로 그 위상을 확실히 하는 사건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법흥왕은 주변 경쟁국이었던 백제, 고구려와의 외교 관계는 물론 중국과의 외교적 물꼬를 텃다. 백제와 고구려, 중국의 문화를 수용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 신라의 국세(國勢)는 더욱 높아졌을 것이다. 문헌자료뿐만 아니라 법흥왕 시기에 건립되었던 비문 등에도 법흥왕이 각 부(部)의 신하뿐만 아니라 승려들을 이끌고 하늘에 제사지내거나 모임을 개최했던 모습을 전한다. 이는 법흥왕이 국왕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는데 큰 도움으로 작용했다. 이 바탕에서 진흥왕이 왕위에 올랐고, 치세 40여 년간 문화적, 정치적으로 신라의 국가적 토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순수비에 전하는 여러 내용들을 중심으로 진흥왕의 업적 면면을 문헌 자료와 함께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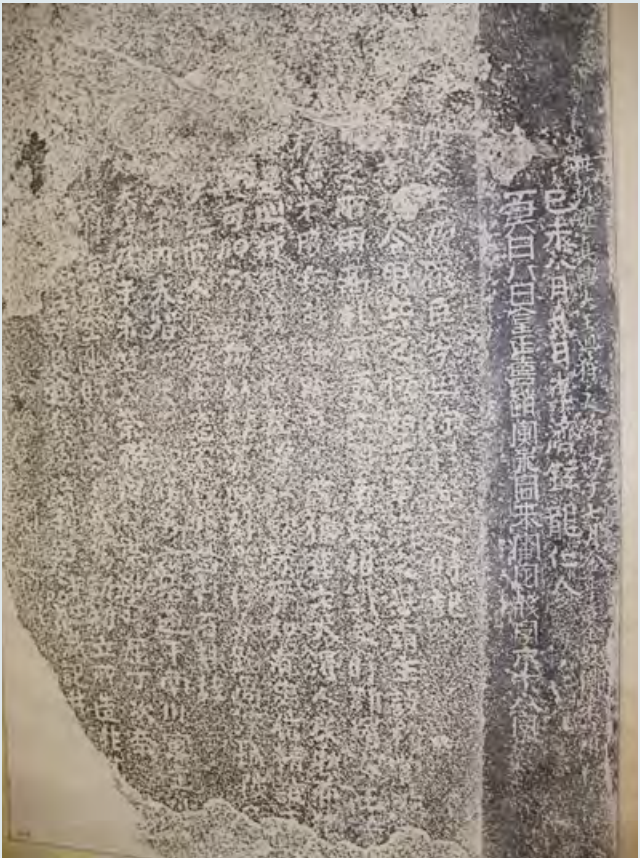
순수비의 기록은 앞부분에만 음각되어 있으며, 뒷면과 옆면에는 원래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직사각형의 몸돌에 세세히 기록해 놓았던 내용은 풍화 작용 등으로 알아 볼 수 있는 정보가 크게 부족하지만, 그 대로 중요한 용어와 내용들은 해석되어 역사의 행간을 채워주고 있다. 해석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열거되어 있다. 연구자마다 비문의 한자나 내용에서 차이점이 있지만, 진흥왕 당시의 내용이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판독 가능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앞면

진흥太王 및 중신들이 □□을 巡狩할 때의 기록이다.
□□言□令甲兵之□□□□□□□□霸主設□賞□□
□□之所用高祀西□□□□□□ 서로 싸울 때 신라의 태왕이 □
□□德不□兵故□□□□□□建文 크게 인민을 얻어 □□□
□□이리하여 관경을 순수하면서 민심을 □□하고 노고를 위로하고자 한다.
만일 충성과 신의와 정성이 있고 □
□□□ 상을 더하고 … 한성을 지나는 길에 올라 □
□□□ 도인이 석굴에 살고 있는 것을 보고 … 돌에 새겨 辭를 기록한다.
□□ 척간 내부지 일척간 사탁 무력지 잡간이다. 남천군주는 沙喙 … 부지 금간 미지 대나 □□□□ 沙喙 굴정차나
□□谷□指□ 비고 그윽한 즉 水□□□□劫 처음에 세워 만든 바는 非□ 순수하여 見□□□□□□□□歲記井□□□
- 출처 :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제2책, 신라

옆면

이것은 신라 진흥왕의 순수비이다. 병자년(1816) 7월에 김정희와 김경연이 와서 읽었다.
정축년(1817년) 6월 8일 김정희와 조인영이 와서 조사하고 남은자 68자를 정하였다.



12 진흥왕 순수비 탁본 앞면(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년 秋 7월	540	진흥왕이 즉위하다
2년	541	이사부를 병부령으로 삼다
5년 春 2월	544	흥륜사가 완성되다
6년 秋 7월	545	국사를 편찬하다
9년 春 2월	548	백제를 침입한 고구려를 공격하다
11년 春 3월	550	이찬 이사부 두성을 빼앗다
12년 春 1월	551	연호를 개국으로 바꾸다 고구려를 침입하여 10개 군을 빼앗다
14년 春 2월	553	황룡사를 짓다
14년 秋 7월		신주를 설치하다
16년 春 1월		비사설에 완산주를 설치하다
16년 冬 10월	555	북한산에 수행하다
16년 冬 11월		북한산에서 돌아오다
17년 秋 7월	556	비열홀주를 설치하다
18년	557	국원을 소경으로 삼다
18년		감문주와 북한산주를 설치하다
25년	564	북제에 사신을 보내다
26년 秋 9월	565	대야주를 설치하다
26년		진에서 불경을 보내다
27년		동륜을 태자로 삼다
27년	566	진에서 사신을 보내다
27년		황룡사가 완성되다
29년		연호를 태창으로 바꾸다
29년 冬 10월	568	남천주와 달홀주를 설치하다
33년 春 1월	572	연호를 흥제로 바꾸다
33년		북제에 사신을 보내다

13 진흥왕 재위기간 업적(『삼국사기』 신라본기 제4, 진흥왕)

마멸이 심하여 전체 내용을 알 길이 없으나, ‘태왕(太王)’, ‘순수(巡狩)’, ‘도인(道人)’, ‘사면(赦免)’, ‘군주(軍主)’ 등의 글귀와 비문에 등장하는 김무력 등의 인물들은 문헌의 내용을 보충하는 부분이 많다. 태왕은 신라 국왕의 자부심과 위상을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용어로 진흥왕대 신라의 국세를 반영한다. 이와 더불어 집(朕)은 중국의 황제(皇帝)가 자신을 나타내는 말로, 제왕(帝王)이라는 표현과 함께 신라의 독자적 위상을 표현한다. 북한산 순수비에 집(朕)의 표현은 보이지 않으나, 마운령비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북한산 순수비에도 표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독자성은 위 『삼국사기』 기록에서 보듯이, 개국·태창·흥제 연호의 사용으로도 표출되었다. 나아가 진흥왕 순수비에 보이는 태왕(太王)이나 제왕(帝王), 집

(朕)은 신라의 국가적 성장을 대내외에 공개적으로 알린다는 점에서 단순한 국내용 표현이 아니라 대외적인 자신감과 직결되는 표현으로 이해된다. 순행은 황제가 신하를 이끌고 영토를 돌아보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행위를 말한다. 막대한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다. 치안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지역에 황제가 순행을 나가 지역민들을 위무(慰撫)하고 자신이 영토에 대한 확실한 통치권을 행사하는 정치적 자신감이기도 하다.

문헌사료에 따르면, 진흥왕은 북한산주, 비열홀주, 남천주 등 북방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군주를 두어 영토 지배의 교두보로 삼았다. 이들 지역을 순행함으로써 자신의 통치권이 보장되었고, 경제적·군사적·정치적 지배력이 공고히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새로 편성된 지역민에 대해서는 사면을 통해 유교적 국왕임을 표방했다. 진흥왕이 유교적 교화를 명분으로 삼아 지역민의 충성을 이끌어 내고, 종교적으로 불교 승려를 존중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종교적 일원화를 꾀하고자 했다. 지역 지배단위로 주(州)와 군(郡)을 설치하고, 종교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주통(州統)과 군통(郡統)을 두고 중앙 불교교단의 통제를 받게 함으로써 일원화된 정교(政敎)의 지배가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처럼 진흥왕은 신라 통일의 반석을 다진 국왕으로 문화적, 정치적, 종교적으로 신라의 국가적 내실을 견고히 했다. 그는 재위 시 신라를 위협했던 백제와 고구려와 실력 경쟁에서 맞섰다. 삼국이 경합을 벌이던 한강유역을 확보함으로써, 중국의 남·북조에서 다양한 문화를 유입할 수 있었고 신라의 대외적 위상은 한층 높아졌다. 진흥왕은 자신의 아들 태자의 이름을 동륜(銅輪)이라 했다. 동륜은 전륜성왕(轉輪聖王)에서 가져 온 개념이다. 전륜성왕은 사방을 교화와 덕으로 지배하는 불교적 군주를 상징한다. 우리가 만난 순수비는 차가운 돌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1,500여 년 전 신라 진흥왕의 꿈과 세계관을 전한다. IN

필자 소개

국가기록원 콘텐츠기획과에서 편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